

2017년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

2018. 3. .

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목 차

요 약	3
I . 개 요	6
II . 지역·국가별 동향	8
III . 업종별 동향	13
IV . 기타(기업규모별·투자규모별 동향 등).....	18

【 요약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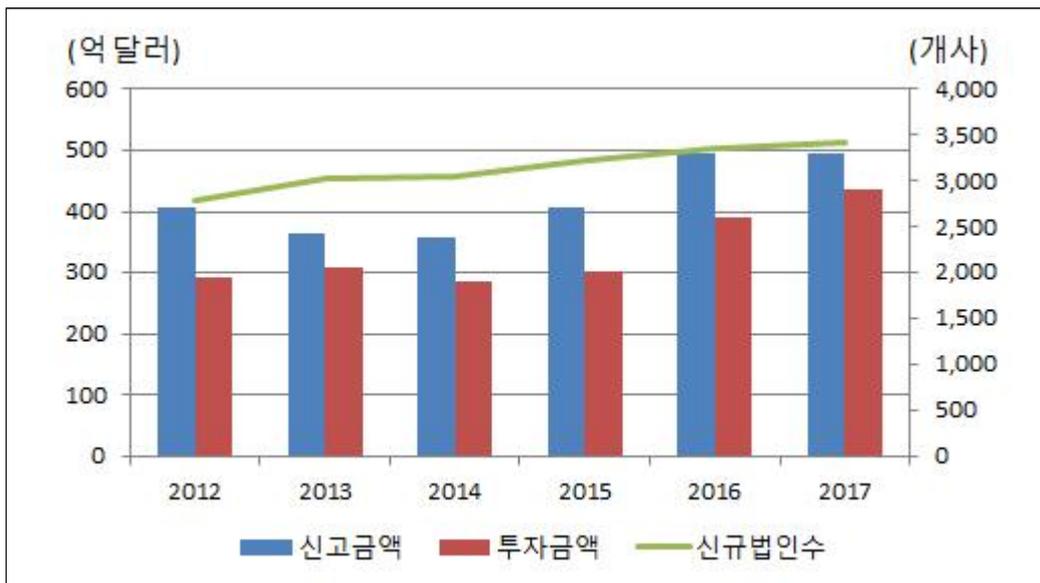
【 연간 동향 】

- (투자금액) '17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437.0억 달러를 기록하며 '16년(391.0억 달러) 대비 11.8% 증가
 - (신고금액) 494.3억 달러로 전년(496.2억 달러) 대비 0.4% 감소
 - (신규 법인수) 3,411개사로 전년(3,353개사) 대비 1.7% 증가

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개사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
투자금액	30,779	28,489	30,287	39,097	43,696
(증가율)	(4.9%)	(△7.4%)	(6.3%)	(29.1%)	(11.8%)
신규법인수	3,037	3,049	3,219	3,353	3,411
(증가율)	(9.0%)	(0.4%)	(5.6%)	(4.2%)	(1.7%)



※ 상위 10개 투자국가(억 달러) : 미국(152.9), 케이만군도(49.8), 중국(29.7), 홍콩(29.7), 베트남(19.5), 룩셈부르크(15.6), 아일랜드(15.1), 영국(11.1), 싱가포르(10.2), 일본(8.3)

【 지역별 】

□ 북미(157.7억 달러)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(6.6%)를 보이며 전년도에 이어 최대 투자지역을 유지하였으며, 아시아(122.8억 달러)는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(11.4%)

최근 5년간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
북 미 (비 중)	6,495 (21.1%)	7,091 (24.9%)	7,607 (25.1%)	14,796 (37.8%)	15,766 (36.1%)
아 시 아 (비 중)	11,366 (36.9%)	9,170 (32.2%)	10,701 (35.3%)	11,023 (28.2%)	12,281 (28.1%)
중 남 미 (비 중)	3,529 (11.5%)	4,401 (15.4%)	5,541 (18.3%)	6,048 (15.5%)	7,000 (16.0%)
유 럽 (비 중)	5,466 (17.8%)	4,282 (15.0%)	3,478 (11.5%)	4,401 (11.3%)	6,848 (15.7%)

【 업종별 】

□ 금융보험업 및 도소매업 투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(각 47.5% 및 64.9%)한 반면,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은 감소(각 △3.4% 및 △43.3%)

○ 특히, 금융보험업 투자의 경우 케이만군도, 미국, 홍콩 등 대부분의 주요 투자국 앞 투자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

최근 5년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
금 용 보 험 업 (비 중)	3,222 (10.5%)	3,771 (13.2%)	6,534 (21.6%)	8,608 (22.0%)	12,697 (29.1%)
도 소 매 업 (비 중)	2,183 (7.1%)	1,684 (5.9%)	2,233 (7.4%)	5,796 (14.8%)	9,558 (21.9%)
제 조 업 (비 중)	9,478 (30.8%)	7,519 (26.4%)	7,928 (26.2%)	8,115 (20.8%)	7,836 (17.9%)
부 동 산 임 대 업 (비 중)	5,014 (16.3%)	4,101 (14.4%)	4,790 (15.8%)	6,624 (16.9%)	3,759 (8.6%)
출판·영상·방송·통신·정보업 (비 중)	465 (1.5%)	913 (3.2%)	697 (2.3%)	1,341 (3.4%)	2,309 (5.3%)

【 기업규모별 】

□ 대기업 투자금액(353.5억 달러)은 전년대비 11.6%, 중소기업(74.4억 달러)은 전년대비 14.4% 증가

○ 전체 투자금액 중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80.9%, 중소기업은 17.0%를 차지

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
대 기 업 (비 중)	25,472 (82.8%)	23,778 (83.5%)	24,338 (80.4%)	31,665 (81.0%)	35,347 (80.9%)
중 소 기 업 (비 중)	2,736 (8.9%)	3,242 (11.4%)	4,787 (15.8%)	6,507 (16.6%)	7,443 (17.0%)

【 투자유형별 】

□ 그린필드형(신규법인 설립) 투자는 229.1억 달러, M&A형(기존법인 지분인수) 투자는 205.3억 달러를 기록

○ 기존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M&A형 투자비중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중

* M&A형 투자비중 : ('13) 23.4% → ('15) 27.3% → ('17) 47.0%

최근 5년간 투자유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
신 규 법 인 설 립 (비 중)	23,434 (76.1%)	20,184 (70.9%)	21,525 (71.1%)	23,409 (59.9%)	22,914 (52.4%)
기존법인지분인수 (비 중)	7,215 (23.4%)	8,003 (28.1%)	8,261 (27.3%)	15,371 (39.3%)	20,531 (47.0%)

I. 개 요

1. 연간 동향 및 주요 특징

- (투자금액) '17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437.0억 달러를 기록하며 '16년(391.0억 달러) 대비 11.8% 증가
- (신규법인) '17년 신규투자 법인수는 3,411개로 전년 대비 1.7% 증가

<표 1>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개사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
투자금액	30,779	28,489	30,287	39,097	43,696
(증가율)	(4.9%)	(△7.4%)	(6.3%)	(29.1%)	(11.8%)
신규법인수	3,037	3,049	3,219	3,353	3,411
(증가율)	(9.0%)	(0.4%)	(5.6%)	(4.2%)	(1.7%)

- (지역별 동향) 북미(6.6%), 아시아(11.4%), 중남미(15.8%), 유럽(55.6%) 등 주요 투자지역 및 아프리카(49.0%) 앞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, 대양주(△42.3%), 중동(△40.1%) 앞 투자는 감소
- 북미는 도소매업, 아시아 및 중남미는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, 유럽은 금융보험업 및 도소매업 투자증가에 따라 전체 투자규모 증가
- 한편, 북미(157.7억 달러), 아시아(122.8억 달러), 중남미(70.0억 달러) 등 상위 3대 투자지역 앞 투자비중은 80.0%를 기록

※ 상위 10개 투자국가(억 달러) : 미국(152.9), 케이만군도(49.8), 중국(29.7), 홍콩(29.7), 베트남(19.5), 룩셈부르크(15.6), 아일랜드(15.1), 영국(11.1), 싱가포르(10.2), 일본(8.3)

- (업종별 동향) 금융보험업(47.5%), 도소매업(64.9%) 투자는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, 제조업 투자는 소폭 감소(△3.4%)하였으며, 부동산 임대업 투자는 28.6억 달러가 감소하며 전년대비 대폭 축소(△42.3%).
 - 부동산임대업의 뒤를 이어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이 전년대비 72.3% 증가한 23.1억 달러를, 광업이 △42.8% 감소한 15.9억 달러를 기록

※ 상위 3대 투자업종의 투자금액 및 비중 추이

- 제조업 투자금액(비중) : ('16) 81.2억 달러(20.8%) → ('17) 78.4억 달러(17.9%)
- 도소매업 투자금액(비중) : ('16) 57.9억 달러(14.8%) → ('16) 95.6억 달러(21.9%)
- 금융보험업 투자금액(비중) : ('16) 86.1억 달러(22.0%) → ('17) 127.0억 달러(29.1%)

- (투자규모 동향)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비중 및 대기업 투자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소폭 감소
 - 대규모 투자비중 : ('16) 53.2% → ('17) 51.5%
 - 대기업 투자비중 : ('16) 81.0% → ('17) 80.9%

II. 지역·국가별 동향

1. 개 관

- (주요 투자지역) '17년 중 지역별 투자 순위는 북미, 아시아, 중남미 순이며, 상위 3대 지역 앞 투자비중이 전체의 80.2%를 차지
- (증감현황) 대양주,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 투자가 증가하였으며, 특히 유럽 지역 투자가 크게 확대(55.6%) 되며 '17년도 투자증가를 견인

<표 2> 최근 5년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*	
북 미	6,495	7,091	7,607	14,796	15,766	6.6%
아 시 아	11,366	9,170	10,701	11,023	12,281	11.4%
중 남 미	3,529	4,401	5,541	6,048	7,000	15.8%
유 럽	5,466	4,282	3,478	4,401	6,848	55.6%
대 양 주	3,296	2,050	1,248	1,583	913	△42.3%
중 동	400	1,175	1,560	1,089	652	△40.1%
아 프 리 카	226	319	151	158	236	49.0%
합 계	30,779	28,489	30,287	39,097	43,696	11.8%

*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률(이하 동일)

- (지역별 신규법인수) 아시아 지역 신규투자 법인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의 대부분의 비중(68.1%)을 차지하였으며, 유럽 지역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신규법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(30.6%)

<표 3> 최근 5년간 지역별 신규법인수 추이 (개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아 시 아	2,026	2,038	2,152	2,337	2,322	△0.6%
북 미	537	548	576	548	560	2.2%
유 럽	195	189	187	206	269	30.6%
중 남 미	115	127	159	126	131	4.0%
대 양 주	77	62	40	70	60	△14.3%
중 동	52	44	58	39	46	17.9%
아 프 리 카	35	41	47	27	23	△14.8%
합 계	3,037	3,049	3,219	3,353	3,411	1.7%

※ 신규법인 1개 당 투자액: (아시아) 6.8백만불, (북미) 21.9백만불, (유럽) 26.0백만불, (중남미) 52.3백만불

2. 지역·국가별 세부 동향

가. 아시아

- (주요 투자국) 아시아 최대 투자국인 중국 앞 투자(29.7억 달러)가 제조업 투자 축소로 전년 대비 11.9% 감소하며 '93년 이후 역대 최저 투자 비중(24.2%)을 기록한 반면, 홍콩 앞 투자(29.7억 달러)는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(90.2%)

<표 4> 최근 5년간 아시아 주요국 앞 해외직접투자 추이
(백만 달러, %)

구	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중	국	5,171	3,196	2,969	3,368	2,969	△11.9%
홍	콩	881	630	1,930	1,560	2,967	90.2%
베	트 남	1,158	1,619	1,608	2,370	1,955	△17.5%
싱	가 포 르	553	980	1,458	1,175	1,022	△13.1%
일	본	757	495	809	320	832	159.9%
아	세 안 *	3,887	4,152	4,403	5,323	4,849	△8.9%

*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캄보디아, 태국, 라오스, 브루나이(아세안 내 '17년 투자금액 상위국 순)

- (주요 업종) 아시아 최대 투자업종인 제조업 투자는 전년대비 감소(△6.3%)하였으나, 금융보험업 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(152.7%)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, 지역 전체 투자 증가(11.4%)를 견인

* 對아시아 최근 5년('13~'17) 제조업 투자비중 : 62.3% → 57.7% → 45.7% → 50.8% → 42.7%

* 對아시아 최근 5년('13~'17) 금융보험업 투자비중 : 4.8% → 8.1% → 17.4% → 11.5% → 26.0%

<표 5> 최근 5년간 아시아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(백만 달러, %)

구	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제	조 업	7,084	5,293	4,895	5,602	5,249	△6.3%
금	용 보 험 업	540	742	1,863	1,266	3,198	152.7%
도	소 매 업	1,117	821	1,049	1,323	1,234	△6.7%
부	동 산 임 대 업	213	445	271	538	806	49.7%

※ 아시아 상위 투자 사업

- . 홍콩 금융보험업 투자 : 3.9억 달러
- . 홍콩 금융보험업 투자 : 3.2억 달러
- . 중국 제조업 투자 : 3.0억 달러

나. 북미

- (주요 투자국) 미국 앞 투자(152.9억 달러)는 도소매업 및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증가(12.8%)하였으며, 캐나다 앞 투자규모는 광업 투자 축소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(△61.4%)

<표 6> 최근 5년간 북미 주요국 앞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미 국	5,861	5,954	7,043	13,555	15,287	12.8%
캐 나 다	634	1,137	565	1,242	479	△61.4%

- (주요 업종) 도소매업 투자가 대폭 증가(68.4%)하며 전년에 이어 역대 최대 투자업종을 유지한데 이어,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역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15억 달러 증가하였으나, 역대 상위 투자업종인 부동산임대업 투자 감소(△59.1%)로 지역 전체 투자 증가는 6.6%에 그침

<표 7> 최근 5년간 북미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도 소 매 업	576	504	887	3,997	6,731	68.4%
금 융 보 험 업	727	940	1,945	2,916	3,356	15.1%
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	115	339	289	321	1,805	461.7%
부 동 산 임 대 업	1,739	1,882	1,852	3,934	1,609	△59.1%

※ 북미 상위 투자 사업

- . 미국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투자 : 7.1억 달러

다. 중남미

- (주요 투자국) 對케이만군도 및 영국령 버진군도 앞 투자가 금융 보험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전체 중남미 지역 투자(70.0억 달러) 증가(15.8%)를 주도

<표 8> 최근 5년간 중남미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케이만군도	1,578	2,283	3,145	4,460	4,978	11.6%
브라질	534	467	766	688	459	△33.3%
멕시코	691	830	1,031	436	457	4.7%
영국령버진군도	14	55	32	26	411	1,4920%
페루	271	403	284	233	375	61.0%

- (주요 업종) 중남미 최대 투자업종인 금융보험업 투자 증가(31.5%)가 전체 중남미 투자규모 증가를 견인

<표 9> 최근 5년간 중남미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금융보험업	901	1,194	2,207	3,406	4,477	31.5%
운수업	16	15	30	121	640	428.2%
제조업	599	648	1,368	918	596	△35.1%
광업	851	961	738	266	392	47.8%
전기·가스·수도업	95	291	66	384	257	△32.9%

※ 중남미 상위 투자 사업

- . 케이만군도 운수업 투자 : 2.6억 달러
- . 케이만군도 금융보험업 투자 : 2.6억 달러
- . 브라질 운수업 투자 : 2.0억 달러

라. 유럽

- (주요 투자국) 룩셈부르크, 아일랜드, 영국 등 유럽 주요국 대부분이 투자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, 유럽 앞 투자(68.5억 달러)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(55.6%)

<표 10> 최근 5년간 유럽 주요국 앞 해외직접투자 추이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룩셈부르크	411	1,191	251	881	1,558	76.9%
아일랜드	116	202	100	72	1,512	2,004.7%
영국	609	321	294	938	1,108	18.2%
건지	425	321	267	283	625	120.6%
저지	766	52	155	166	410	147.4%

- (주요 업종) 부동산임대업의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(△23.4%)한 반면, 금융보험업은 증가(85.6%)하였으며, 도소매업 역시 아일랜드 앞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(377.1%)

<표 11> 최근 5년간 유럽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금융보험업	995	888	508	831	1,543	85.6%
도소매업	346	257	221	305	1,454	377.1%
부동산임대업	1,097	685	1,277	1,267	971	△23.4%
제조업	992	545	656	609	915	50.2%
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	368	489	126	109	532	386.4%

※ 유럽 상위 투자 사업

- . 아일랜드 도소매업 투자 : 13.5억 달러
- . 영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투자 : 3.7억 달러
- . 룩셈부르크 금융보험업 투자 : 2.6억 달러
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 관

- (주요 투자업종) 금융보험업(47.5%), 도소매업(64.9%) 투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, 부동산임대업 투자는 28.6억 달러가 감소 금융보험업(127.0억 달러)의 경우 전년 대비 40.9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
- 주투자업종인 제조업은 78.4억 달러 규모로, 최근 4년간 정체 수준을 보인 반면, 금융보험업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

<표 12> 최근 5년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금 용 보 험 업	3,222	3,771	6,534	8,608	12,697	47.5%
도 소 매 업	2,183	1,684	2,233	5,796	9,558	64.9%
제 조 업	9,478	7,519	7,928	8,115	7,836	△3.4%
부 동 산 임 대 업	5,014	4,101	4,790	6,624	3,759	△43.3%
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	465	913	697	1,341	2,309	72.3%
전 체	30,779	28,489	30,287	39,097	43,696	11.8%

- (업종별 신규법인수) '17년 신규법인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(1.7%) 하였으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(각 31.1% 및 22.1%)이 전체 신규법인수의 과반 이상(54.1%)을 차지
- 제조업 및 도소매업 신규법인수 감소(각 △4.1% 및 △1.7%)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및 부동산임대업 신규법인 수 증가(각각 30.6% 및 41.7%)로 상쇄

<표 13> 최근 5년간 업종별 신규법인수 추이 (개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제 조 업	1,170	1,188	1,170	1,136	1,089	△4.1%
도 소 매 업	634	623	719	768	755	△1.7%
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	147	202	241	229	299	30.6%
전 문 과 학 기 술 업	184	188	179	186	203	9.1%
부 동 산 임 대 업	129	156	116	132	187	41.7%
전 체	3,037	3,049	3,219	3,353	3,411	1.7%

2. 업종별 세부 동향

가. 금융보험업

- (주요 투자국) 최대 투자대상국인 **케이만군도**(17.3%), **미국**(8.4%) 투자 증가에 더불어 **홍콩** 등 주요 금융보험업 투자국 앞 투자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, 전체 금융보험업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

<표 14> 최근 5년간 금융보험업 주요국 앞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케이만군도	884	1,094	2,153	3,400	3,987	17.3%
미 국	725	890	1,869	2,820	3,057	8.4%
홍 콩	129	58	1,246	82	2,046	2,403.0%
룩셈부르크	78	189	53	125	651	419.3%
영국령버진군도	0	1	15	5	411	7,928.0%

- (세부업종) 금융업 투자가 금융보험업 투자의 대부분(93.1%)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,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 투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(79.3%)하였으며, 보험 및 연금업은 감소(△24.3%)
- 금융업종 내에서는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집합펀드 등 기타 투자기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

<표 15> 최근 5년간 금융보험업 세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금 융 업	2,889	3,450	6,128	8,046	11,822	46.9%
금융및보험서비스업	167	187	318	433	777	79.3%
보 험 및 연 금 업	166	135	88	129	97	△24.3%

나. 도소매업

- (주요 투자국) 기존 최대 도소매업 투자국인 미국 앞 투자 증가 (68.9%)에 더불어 아일랜드 앞 대규모 투자건이 도소매업 전체 투자 증가(64.9%)를 주도

<표 17> 최근 5년간 도소매업의 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미 국	556	498	870	3,985	6,731	68.9%
아 일 랜 드	-	0	0	-	1,345	-
홍 콩	129	130	224	471	443	△5.9%
중 국	230	249	241	206	353	70.9%
싱 가 포 르	251	172	330	375	139	△62.9%

- (세부업종)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미국 앞 대규모 투자건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큰 폭(81.8%)으로 증가한 반면, 소매업은 싱가포르 및 미국 투자규모 축소에 따라 감소(△19.2%)

<표 18> 최근 5년간 도소매업 세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도매 및 상품 중개업	1,068	852	1,235	4,663	8,478	81.8%
소 매 업 *	1,039	592	802	993	802	△19.2%
자 동 차 판 매 업	77	240	196	139	279	100.0%

* 자동차 제외

다. 제조업

- (주요 투자국) 제조업 상위 투자국인 중국, 베트남 및 미국 앞 투자규모가 일제히 감소하며 전체 제조업 투자 축소(△3.4%)를 주도한 반면, 인도 및 말레이시아 앞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(각 55.8% 및 67.6%)

<표 19> 최근 5년간 제조업의 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중 국	4,463	2,576	2,378	2,452	2,135	△12.9%
베 트 남	782	1,025	1,146	1,767	1,393	△21.2%
미 국	759	718	838	847	741	△12.5%
인 도	296	305	273	267	416	55.8%
멕 시 코	55	236	903	414	365	△12.0%
말레이시아	184	108	40	166	279	67.6%
홍 콩	246	205	125	374	218	△41.8%
싱 가 포 르	29	176	77	84	202	142.1%

- (세부업종) 전자부품 투자는 중국 앞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(8.3%)하였으며,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 및 인도 앞 투자에 힘입어 증가(15.2%) 하였으나, 화학물질·제품 제조업은 감소(△17.6%)

<표 20> 최근 5년간 제조업 세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전 자 부 품	3,952	1,580	1,253	1,474	1,597	8.3%
자 동 차	1,243	915	1,913	1,322	1,522	15.2%
전 기 장 비	473	400	523	653	641	△1.8%
화학물질·제품	403	969	778	687	566	△17.6%
식 료 품	293	202	280	441	540	22.6%

라. 부동산업 및 임대업

- (주요 투자국)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업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해온 미국 앞 투자가 대폭 감소(△58.9%)하며 '17년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43.3% 감소한 37.6억 달러를 시현

<표 21>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업의 주요국 앞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미 국	1,737	1,794	1,830	3,891	1,600	△58.9%
룩셈부르크	322	476	141	562	840	49.5%
일 본	19	134	118	54	335	524.3%
케이만군도	505	591	776	461	253	△45.0%
중 국	69	88	19	109	139	27.9%

- (세부업종) 부동산업 및 임대업 모두 큰 폭으로 감소(각 △40.4% 및 △73.1%)

<표 22>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업 세부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부 동 산 업	4,286	3,525	4,319	6,049	3,604	△40.4%
임대업(부동산 제외)	728	575	471	576	155	△73.1%

IV. 기 타

1. 기업규모별 동향

- 대기업 투자금액(353.5억 달러)은 전년대비 11.6%, 중소기업 투자금액(74.4억 달러)은 전년대비 14.4% 증가
 - 전체 투자금액 중 대기업의 투자비중이 80.9%, 중소기업이 17.0%를 차지

<표 23>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대 기 업	25,472	23,778	24,338	31,665	35,347	11.6%
중 소 기 업	2,736	3,242	4,787	6,507	7,443	14.4%
개 인	307	553	341	412	600	45.8%
개 인 기 업	37	46	25	34	25	△27.1%
기타(비영리단체 등)	2,226	868	796	479	281	△41.2%
합 계	30,779	28,489	30,287	39,097	43,696	11.8%

- 대기업의 신규법인수는 전년대비 감소(△11.6%)한 반면, 중소기업 신규법인수는 8.1%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

<표 24>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수 추이

(개사, %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대 기 업	574	549	500	594	525	△11.6%
중 소 기 업	1,372	1,476	1,671	1,704	1,842	8.1%
개 인	949	891	953	965	959	△0.6%
개 인 기 업	73	70	55	58	55	△5.2%
기타(비영리단체 등)	69	63	39	31	30	△3.2%
합 계	3,037	3,049	3,219	3,353	3,411	1.7%

2. 투자규모별 동향

- '17년 1억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가 전년 대비 8.2% 증가하였으나, 투자 비중은 '16년 53.2%에서 '17년 51.5%로 소폭 감소

<표 25> 최근 5년간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	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5	백만달러 미만	3,269	3,219	3,364	3,497	3,682	5.3%
5	백만달러~1천만달러	1,367	1,544	1,928	1,923	1,971	2.5%
1	천만달러~5천만달러	6,408	6,422	7,142	8,373	8,895	6.2%
5	천만달러~1억달러	4,645	4,828	4,579	4,514	6,662	47.6%
1	억달러 이상	15,089	12,476	13,274	20,791	22,487	8.2%
합	계	30,779	28,489	30,287	39,097	43,696	11.8%

3. 지분율별 동향

- 투자자의 지분보유율이 100%(단독투자)인 투자금액은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0.0% 증가하였으며, 투자비중 또한 9.2%p 증가

* 지분보유율 100% 투자비중 : ('16) 56.4% → ('17) 65.6%

<표 26> 최근 5년간 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(백만 달러, %)

구	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10%	미만	192	389	964	453	434	△4.1%
10%	이상~50%미만	4,972	4,380	2,899	4,522	6,153	36.1%
50%		1,015	976	844	906	685	△24.5%
50%	초과~100%미만	5,489	6,127	8,495	11,164	7,756	△30.5%
100%		19,111	16,617	17,085	22,052	28,668	30.0%
합	계	30,779	28,489	30,287	39,097	43,696	11.8%

4. 투자방법별 동향

- 2017년 증권 취득 방식의 투자는 전년 대비 14.7% 증가하였으나, 대부채권 취득 방식의 투자는 전년 대비 7.1% 감소

<표 27> **최근 5년간 투자방법별 해외직접투자 추이**
(백만 달러, %)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증권취득	26,483	23,541	24,808	33,980	38,986	14.7%
대부채권취득	4,166	4,647	4,978	4,800	4,459	△7.1%
지점/사무소	128	301	501	317	251	△20.6%
합계	30,779	28,489	30,287	39,097	43,696	11.8%

5. 설립형태별 동향

- '17년 중 그린필드형(신규법인 설립) 투자는 229.1억 달러, M&A형(기존법인 지분인수) 투자는 205.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최근 5년간 M&A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

* M&A 투자비중(%) : ('13) 23.4 → ('14) 28.1 → ('15) 27.3 → ('16) 39.3 → ('17) 47.0

<표 28> **최근 5년간 설립형태별 해외직접투자 추이**
(백만 달러, %)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신규법인설립	23,434	20,184	21,525	23,409	22,914	△2.1%
기존법인지분인수	7,215	8,003	8,261	15,371	20,531	33.6%
지점/사무소	130	301	501	317	251	△20.6%
합계	30,779	28,489	30,287	39,097	43,696	11.8%

- 한편, M&A 투자의 경우, 도소매업,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

<표 29> **최근 5년간 M&A형 해외직접투자 추이**
(백만 달러, %)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	
도소매업	702	670	1,125	4,236	7,717	82.2%
금융보험업	589	1,172	1,688	3,225	6,345	96.7%
제조업	2,325	1,276	1,765	1,776	1,981	11.6%
부동산임대업	1,321	1,672	1,944	2,845	1,601	△43.7%
운수업	192	448	43	671	1,140	69.9%
합계	7,215	8,003	8,261	15,371	20,531	33.6%